

전주시, 갑진년 새해 결의 다져

우범기 시장 등 간부공무원, 전주군경묘지서 신년맞이 참배 행사 가져

전주시는 2일 전주군경묘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인태 부시장,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갑진년(甲辰年) 신년맞이 참배 행사를 가졌다.

신년 참배는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국가와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을 늘 기억하고, 숭고한 구국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갑진년 새해에도 전주시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주군경묘지의 유족 쉼터를 개선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적극 힘써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2일 전주군경묘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인태 부시장,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년맞이 참배 행사를 가졌다.

전북대병원, 제5기 상급종합병원 5회 연속 지정

도민 건강 증진·의료 질 향상 최선 다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지난해 12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었고 2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5기까지 5회 연속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재지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운영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신청한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최종 총 47개소가 지정됐다. 전북권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총 2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유희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전북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증진료체계를 갖추고 국가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전경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11개 진료권역별로 나눠 인력·시설·장비, 진료 수행하는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상대평가를 통해 3년마다 지정한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신청한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최종 총 47개소가 지정됐다. 전북권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총 2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유희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전북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증진료체계를 갖추고 국가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기업 현장 방문으로 희망찬 새해 시작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형 일자리 참여기업 아이버스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전주시를 청년이 찾아오고 신산업이 역동하는 강한경제도시로 만들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기업 현장에 있는 것으로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시작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일 군경묘지를 참배한 이후 기업과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위해 전주형 일자리 참여기업을 찾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방문 기업은 전주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주)아이버스. 우 시장은 강주일 대표로부터 회사의 현황과 비전 설명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 따져 풀려 일하는 (주)아이버스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우 시장은 이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소 방안을 모색·공유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주)아이버스는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 가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으며, 현재 '전북 전주형 일자리'에 참여해 국산 탄소섬유 밸류체인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2일 전주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주)아이버스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주일 (주)아이버스 대표는 이날 "오는 2026년까지 제2·제3공장 준공을 목표로 친환경 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성과 품질 경쟁력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주시가 복합합리한 기업규제 발굴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의 미래 신산업을 이끌 탄소소재산업이 지역의 백년대계인 만큼,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재정 지원 등 탄소소재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군경묘지 참배로 갑진년 의정활동 시작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신년 인사회와 군경묘지 참배로 갑진년 새해 의정활동의 문을 열었다.

이기동 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2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고 새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이어 의원들은 전주 군경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올해는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기동 의장은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등 지역 발전의 새로



전주시의회가 신년 인사회와 군경묘지 참배로 새해 의정활동의 문을 열었다.

운 전기가 시작되는 원년"이라며 "전주시의회는 시민을 주역으로 한 의정활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행

한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실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2024년 올해 이전보다 더욱 시민에게 공감하고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덕진구는 시민의 작은 불편에도 함께하고 더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덕진구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구 기동처리반 및 동 현장행정'을 상시 운영하고 불법 현수막 제거, 취약지 청소 등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습 침수지역, 건축공사 현장 등에는 정기적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매달 전 직원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부서장의 부서

내 사업 현장에 대한 방문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집단민원이나 복합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유관기관 및 시설들을 수시로 방문하고 동별 자생단체, 시민들과의 잦은 교류와 만남을 통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덕진구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경찰청, 국고보조금 442억원 부정수급 121명 검거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121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442억1685만원에 달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교육·보건분야가 34명(28.1%)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분야 27명(22.3%), 문화·관광분야 24명(19.8%), 기타 분야 22명(18.2%), 환경분야 8명(6.6%) 순이었다.

법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는 유형이 90명(74.4%),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용도로 사용 30명(24.8%), 기타 1명 등이었다.

/뉴시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